

ESG 투자의 신학적 뿌리:

기독교 청지기론으로 본 지속가능 책임투자(SRI/ESG)의 재해석

첨단IT학부 핀테크 전공

신은정

I. 서론

2020년1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의 최고경영자 래리 핑크(Larry Fink)는 주요 기업CEO들에게 서한을 발송하였다. 그 서한의 핵심 메시지는 간명하였다. “기후 위험은 투자 위험이다(Climate risk is investment risk).” 이 선언은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즉 ESG가 단순한 윤리적 구호가 아닌 글로벌 자본시장의 핵심 투자 기준으로 공식화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1] ESG는 이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나 이미지 관리 차원을 넘어 투자분석, 기업공시, 리스크 관리,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금융상품 설계 등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는 주주 이익 극대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던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에서 고객, 종업원, 협력사, 지역사회, 환경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중시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비재무적 요소를 투자의 핵심 지표로 삼는 ESG 경영과 투자가 자리 잡고 있다. 투자자는 더 이상 기업의 단기 이익률만을 평가하지 않는다.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익을 창출하는지, 그 이익이 환경과 사회, 미래세대, 공급망 노동자, 지역사회, 주주와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고려한다.

그러나 이처럼 ESG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표준 언어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도덕적·신학적 뿌리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소외되어 왔다. 오늘날 ESG는 세속 금융의 혁신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역사적 기원을 추적하면 17세기 웨이커교도의 투자 윤리, 18세기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돈의 신학, 그리고 20세기 초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사회책임 펀드에 닿아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ESG는 21세기에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금융기법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오랜 시간 축적해 온 경제윤리와 투자 실천이 현대 자본시장의 언어로 번역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의 근본적 질문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ESG는 세속 금융이 발명한 새로운 개념인가, 아니면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수세기에 걸쳐 실천해 온 청지기론의 현대적 회복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자본과 투자, 금융시장의 윤리적 질서를 어떤 세계관 위에서 이해해야 하는지를 묻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적 질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계획서의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째, SRI/ESG의 역사적 기원이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 있음을 역사적 문헌을 통해 규명한다. 둘째, 기독교 청지기론을 핵심 신학적 준거틀로 삼아 ESG의 E·S·G 각 축을 창조 보전, 이웃 사랑, 청지기 보고의 언어로 재해석한다. 셋째, 현대 ESG 방법론이 기독교적 가치와 일치하는 지점과 비판적 성찰이 필요한 지점을 함께 분석한다.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SRI/ESG 투자는 현대 금융시장의 비재무적 평가기법이지만, 그 역사적 기원과 윤리적 구조를 살펴보면 기독교 청지기론, 창조 보전, 이웃 사랑, 공의와 투명성의 신학적 원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기독교적 ESG 투자는 단순한 투자기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자본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게 관리하는 청지기적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II. 연구 질문과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첫째, 사회책임투자(SRI)와 ESG 투자는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등장하였는가? 특히 웨이커와 감리교 공동체의 투자윤리는 현대 책임투자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둘째, 기독교 청지기론은 투자행위에 어떤 신학적 기준을 제공하는가? 창세기 1장28절의 “다스림” 명령은 환경 착취의 근거인가, 아니면 창조세계를 책임 있게 돌보라는 관리의 명령인가?

셋째, ESG의 E·S·G 요소는 각각 어떤 기독교 신학 언어로 재해석될 수 있는가? 환경 요소는 창조 보전으로, 사회 요소는 이웃 사랑과 약자 보호로, 지배구조 요소는 투명한 청지기적 관리로 해석될 수 있는가?

넷째, 현대 ESG 방법론은 기독교적 가치와 어떤 점에서 일치하며, 어떤 점에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한가? 특히 그린워싱, ESG 평가 불일치, ESG의 막몬화, 개도국과 중소기업의 소외 문제는 기독교 청지기론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기본 방법으로 사용한다. 먼저 ESG와 SRI에 관한 대표적 문헌과 국제기구 자료를 검토한다. UN Global Compact의 『Who Cares Wins』 보고서, PRI의 책임투자 원칙, GRI Standards, IFRS S1·S2 등은 ESG가 어떻게 제도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이다.[2] 『Who Cares Wins』는 2004년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의 주도로 금융기관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를 자산운용과 증권중개, 리서치에 통합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이며, ESG라는 용어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확산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3] PRI는 여섯 가지 책임투자 원칙을 통해 ESG 요소를 투자 관행에 통합하도록 안내한다.[4] IFRS S1·S2는 투자자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하고 비교 가능한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5]

다음으로 SRI의 윤리적 기원과 기독교적 뿌리를 다룬 문헌을 검토한다. Sparkes(2002)는 사회책임투자가 윤리적 투자 전통에서 출발하여 제도권 투자 논의로 확장되는 과정을 정리하였다. Wagemans, Koppen, and Mol(2013)은 웨이커와 감리교가 도덕적 이유로 특정 주식을 배제한 초기 투자자들이었음을 설명한다. 이러한 문헌은 현대 ESG가 전혀 새로운 발명이 아니라 종교적·윤리적 투자 전통의 제도화 과정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는 기독교 청지기론과 생태신학 문헌을 활용한다. Lynn White Jr.의 고전 논문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 Crisis」는 서구 기독교의 인간중심적 자연 이해가 생태 위기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고 비판하였다.[6] 반면 Bauckham은 성경의 창조 이해가 인간의 지배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공동체성과 하나님에 대한 공동 의존성을 강조한다고 보았다. DeWitt 역시 기독교인이 창조세계를 책임 있게 돌보는 청지기로 부름받았음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존 웨슬리의 설교 「The Use of Money」를 분석하여, 웨슬리의 돈의3원칙이 현대 ESG 투자윤리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ESG 평가와 공시의 한계를 검토한다. Berg, Kölbel, and Rigobon(2022)은 주요 ESG 평가기관 간 점수 불일치 문제를 분석하면서, ESG 평가가 측정 범위, 측정 방식, 가중치 차이로 인해 상당한 불일치를 보인다고 설명하였다.[7] RepRisk의 2024년 그린워싱 보고서는 전체 그린워싱 사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고위험 그린워싱 사례는 30%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8] 이러한 문제는 ESG가 진정한 청지기적 책임의 제도화가 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 검증 가능성, 책임 보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III. SRI/ESG의 역사적 기원: 신앙에서 자본으로

ESG 투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신인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의 역사적 계보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오늘날 많은 금융 교과서가 ESG를 2000년대 이후 등장한 현대적 개념으로 소개하지만, 그 뿌리는 수백 년 전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투자 실천에 닿아 있다. SRI는 투자자가 재무적 수익만이 아니라 윤리적·사회적·환경적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투자 대상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ESG는 이러한 윤리적 투자 전통이 현대 자본시장의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성 공시, 기업가치 평가 체계와 결합하면서 발전한 제도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1. 퀘이커교도의 투자 윤리: 최초의Negative Screening

사회책임투자의 역사는 17~18세기 퀘이커교도(Quakers)로부터 시작된다. 퀘이커교도들은“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다(There is that of God in every person)”는 신학적 확신에 근거하여, 노예무역·전쟁·무기 생산에 관여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신앙 원칙에 따라 거부하였다. 이는 오늘날 ESG의 Negative Screening, 즉 특정 산업군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식의 최초 형태로 볼 수 있다.

퀘이커교도들의 이 원칙은 개인적 신앙 실천을 넘어 공동체 차원의 경제 윤리로 제도화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이들은 투자를 단순한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에게 투자는 자신이 가진 자원이 어떤 산업을 지지하는가에 대한 신앙적 책임의 문제였다. 노예무역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얻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을 사고파는 구조에 경제적으로 동참하는 행위였다. 따라서 퀘이커교도의 투자 배제는 현대SRI의 윤리적 스크리닝, ESG의 사회적 책임 기준, 인권 기반 투자 배제 전략의 역사적 뿌리라고 할 수 있다.

2. 존 웨슬리의 돈의 신학: SRI의 신학적 원형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는 1760년 표준 설교 「돈의 사용(The Use of Money)」에서 기독교 경제 윤리의 핵심을 세 원칙으로 집약하였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되(Gain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하고(Sa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내어주라(Give all you can).” 특히 웨슬리는 첫 번째 원칙인“많이 벌되”에 중요한

단서를 달았다.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거나, 마음과 도덕성을 해치거나, 이웃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버는 것은 금지된다고 명시하였다.[9]

이 원칙은 오늘날 ESG의 S, 즉 사회 지표와 직접적으로 대응한다. 공급망 노동 윤리, 지역사회 영향 평가, 소비자 보호, 산업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은 모두“이웃을 해치면서 돈을 벌지 말라”는 웨슬리의 원칙이 현대 자본시장의 언어로 제도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웨슬리는 돈을 악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돈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에 있을 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며,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제공하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우상화하는 인간의 마음이다.

따라서 웨슬리의 돈의 3원칙은 개인 재정관리의 지침을 넘어 ESG 투자윤리의 신학적 원형이다. “많이 벌라”는 원칙은 자본의 생산성과 투자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많이 저축하라”는 원칙은 탐욕적 축적이 아니라 낭비와 사치, 과소비를 경계하는 절제의 윤리이다. “많이 나누라”는 원칙은 자본의 최종 목적이 자기 증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선한 사용에 있음을 보여준다.

3. 기독교 SRI 펀드의 출현: 제도화의 시작

1928년 미국에서 설립된 파이어니어 펀드(Pioneer Fund)는 세계 최초의 사회책임 뮤추얼 펀드 중 하나로 기록된다. 이 펀드는 감리교 신앙 공동체의 투자 원칙을 제도화하여 주류·담배·도박 관련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이후 1971년 파스 월드 펀드(Pax World Fund)가 베트남 전쟁 관련 군수산업 기업을 배제하는 원칙으로 설립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기독교 교단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에 반대하여 관련 기업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주 행동을 조직하였다. 이는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단순한 투자 배제를 넘어 주주 권한을 활용한 기업 윤리 개혁에 나선 선례이다.

이러한 역사적 계보는 SRI가 세속 금융시장의 새로운 상품 설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윤리적 자기제한과 책임 있는 자본 사용에서 출발했음을 보여준다. 기독교 공동체는“무엇에 투자할 것인가”만이 아니라“무엇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인가”를 물었다. 이는 투자를 단순한 수익률 경쟁이 아니라 신앙적 양심의 문제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현대 ESG 담론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한다.

4. ESG 개념의 공식화: 신앙에서 제도로

2004년 유엔글로벌콤팩트가 발간한 보고서 「Who Cares Wins」에서 ESG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보고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를 금융시장에 통합하는 것이 더 지속가능한 사회와 더 나은 투자시장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보았다.[10] 2006년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이 출범하며 ESG는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표준 투자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ESG의 기독교적 기원은 세속적 언어로 번역되었지만, 그 본질적 가치인 창조 보전, 인간 존엄, 투명한 관리 책임은 여전히 ESG의 핵심 구조 안에 남아 있다.

다만 이 전환 과정에는 중요한 신학적 긴장이 존재한다. ESG가 신앙 공동체의 윤리적 투자 전통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금융시장에서는 종종 ESG가 수익률 개선, 리스크 관리, 펀드 마케팅, 규제 대응의 도구로만 소비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ESG를 무비판적으로

찬양하지도, 세속적 금융기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ESG의 역사적 뿌리와 신학적 의미를 회복하면서, 동시에 현대 ESG의 한계와 왜곡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시대	주체	핵심 원칙	현대 ESG 대응
17~18세기	퀘이커교도	노예무역·전쟁 기업 투자 거부	Negative Screening
1760년	존 웨슬리	이웃 해치지 않고 돈 벌기	S 지표의 신학적 원형
1928년	감리교 공동체	주류·담배·도박 기업 배제 펀드	SRI 펀드 제도화
1970~1980년대	기독교 교단·평화운동	전쟁·아파트헤이트 관련 기업 배제 및 주주행동	Shareholder Advocacy
2004년 이후	UN Global Compact·PRI	ESG 용어 공식화·글로벌 표준화	현대 ESG 체계 완성

[표1] SRI/ESG의 역사적 계보와 기독교 신앙 공동체

IV. 신학적 준거틀: 청지기론의 세 기둥

본 장은 이후ESG 분석의 신학적 렌즈를 정립한다. 기독교 청지기론(Stewardship)은 단순한 절약이나 금욕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주종 관계에 기반하여 위탁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인격적 사명이다. 청지기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이다. 청지기는 맡겨진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주인의 뜻에 따라 관리하며, 그 관리의 결과를 보고할 책임을 진다.

본 연구는 이 청지기론을 ESG의 각 축과 직접 대응하는 세 가지 신학적 기둥으로 체계화한다. 첫째, 환경(E)은 창조 보전(Creation Care)의 문제이다. 둘째, 사회(S)는 이웃 사랑(Love of Neighbor)과 사회적 공의의 문제이다. 셋째, 지배구조(G)는 청지기 보고(Faithful Accountability)와 투명한 책임의 문제이다.

1. 창조 보전: E의 신학적 근거

환경(E) 지표의 신학적 뿌리는 창세기1~2장의 창조 명령에 있다. 창세기 1장28절은 흔히“땅을 정복하라”는 인간 중심적 지배권으로 해석되어 왔다. Lynn White Jr.는 바로 이러한 해석이 서구 생태 위기의 사상적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비판하였다.[11] 그러나 창세기2장15절은 이 명령의 진정한 의미를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서 경작과 보전의 이중 명령은 인간이 자연의 정복자가 아니라 돌보는 청지기임을 선언한다.

성경 원어의 의미를 반영하면, 창세기1장28절의 “다스림”은 폭력적 지배가 아니라 왕이 백성을 공의로 보살피는 대리 통치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창세기2장15절의 “지키다”는 소중한 것을 보존하고 감시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을 소비하거나 착취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맡아 돌보는 관리자이다.

시편24편1절은 소유권의 문제를 더욱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여호와와 그의 것이요.” 모든 피조 세계의 궁극적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그 소유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이 인식은 환경 문제를 단순한 비용-편익 계산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충성의 문제로 격상시킨다. 현대 ESG의 E 지표인 탄소 배출 감축, 생물다양성 보전, 물 사용 효율화, 폐기물 관리, 재생에너지 전환은 이 창조 보전 사명의 현대적 제도화로 이해될 수 있다.

2. 이웃 사랑과 희년: S의 신학적 근거

사회(S) 지표의 신학적 핵심은 레위기19장18절의 계명이다.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를 율법 전체의 두 번째 핵심으로 재확인하셨다. 이 명령의 경제적 적용은 레위기25장의 희년(Jubilee) 제도에서 구체화된다. 희년은 50년마다 부채를 탕감하고, 팔린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며, 노예를 해방하는 하나님의 경제적 재분배 제도였다. 이는 시장이 자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신앙 공동체가 제도적으로 교정해야 함을 보여준다.

희년의 핵심 단어인 “드로르(deror, 자유/해방)”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 부채 탕감, 토지 반환, 노예 해방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왜곡된 관계를 회복하는 언약적 장치이다. 이는 현대 ESG의 사회 지표가 추구하는 불평등 해소, 포용금융, 노동권 보호, 취약계층 자립 지원과 깊이 연결된다.

웨슬리의 “이웃을 해치면서 돈을 벌지 말라”는 원칙은 이 신학적 명령의 투자론적 번역이다. 현대ESG의 S 지표인 공급망 노동 인권 실사,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산업안전,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공헌, 금융포용은 이웃 사랑의 경제적 제도화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국제공급망 실사 관련 규제의 확산은 기업의 책임이 본사 내부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 전체로 확장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EU는 2024년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을 채택하여 기업이 인권과 환경에 대한 실사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켰다.[12] 이는 이웃 사랑의 범위가 국경을 초월하여 글로벌 공급망 전체로 확장되어야 함을 정책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3. 청지기 보고: G의 신학적 근거

거버넌스(G) 지표의 신학적 기반은 청지기 사명의 핵심인 책임 보고(Accountability)에 있다. 누가복음16장10~12절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라고 말한다. 고린도전서4장2절은 “청지기에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선언한다. 위탁받은 재화와 권한에 대한 투명한 보고와 책임 있는 관리는 청지기의 핵심 의무이다.

마태복음25장의 달란트 비유도 이 지점에서 중요하다. 달란트의 비유는 자산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책임성과 생산성을 보여준다. 주인이 종들을 결산할 때 중요하게 본 것은 자산을 단순히 보존했는가가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 창조적으로 운용했는가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단순한 소극성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불신과 책임 회피에 있었다. 이는 기업 거버넌스에서 투명한 보고, 정직한 이윤 창출, 책임 있는 자본 운용이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 준비임을 일깨워준다.

잠언11장1절의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저울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는 선언은 기업의 공정한 회계·공시 의무와 직접 연결된다. 현대 ESG의 G 지표인 이사회 독립성, 반부패 정책, ESG 공시의 투명성, 경영진 보수 적정성, 내부통제,

이해상충 방지는 이 청지기 보고 원칙의 현대적 제도화이다. IFRS S1·S2와 같은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은 투자자에게 유용하고 비교 가능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될 수 있다.[13]

신학개념	성경 근거	ESG 축	현대 지표 예시
창조 보전	창 1:28, 창 2:15, 시 24:1	E	탄소 배출 감축, 생물다양성 보전, 재생에너지 전환
이웃 사랑과 희년	레 19:18, 레 25장, 마 22:39	S	공급망 인권 실사, 노동권, 금융포용, 지역사회 투자
청지기 보고	마 25장, 눅 16:10-12, 고전 4:2, 잠 11:1	G	이사회 독립성, ESG 공시 투명성, 반부패 정책

[표2] 기독교 청지기론과 ESG 지표의 신학적 매핑

V. 현대 ESG 방법론의 분석: 빛과 그림자

제IV장에서 정립한 신학적 준거들을 적용하여, 현대 ESG 방법론이 기독교적 가치와 일치하는 지점과 비판적 성찰이 필요한 지점을 함께 분석한다. 기독교 세계관은 ESG를 맹목적으로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의 지혜로 분별하는 관점을 요구한다. ESG는 분명 창조 보전, 이웃 사랑, 청지기 보고라는 기독교적 가치와 만나는 지점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린워싱, 평가 불일치, 막론적 활용, 개도국과 중소기업 소외라는 심각한 한계도 지니고 있다.

1. ESG의 빛: 신학적 가치와 일치하는 지점

첫째, ESG의 환경(E) 지표는 창조 보전 사명의 현대적 제도화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물리적 리스크인 홍수, 가뭄, 폭염, 해수면 상승은 가장 취약한 공동체, 즉 개도국 빈곤층과 미래 세대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작용한다. 이는 기후 위기가 동시에 이웃 사랑의 문제임을 의미한다. 탄소 배출 감축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한 리스크 관리를 넘어, 미래 세대와 취약 계층을 향한 청지기적 책임의 이행이다.

둘째, ESG의 사회(S) 지표 중 공급망 인권 실사는 이웃 사랑의 지리적 범위를 글로벌 공급망 전체로 확장한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의류, 커피에는 아시아·아프리카·남미 노동자들의 노동이 담겨 있다. ESG의 S 지표를 통해 이 보이지 않는 이웃의 존엄을 투자 기준에 반영하는 것은 레위기19장의 이웃 사랑을 21세기 금융 언어로 실천하는 방식이다.

셋째, SRI의 Negative Screening은 웨슬리의 원칙과 직접적으로 일치한다. 주류·담배·도박·무기·음란물 생산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웃을 해치면서 돈을 버는 것”을 거부하는 신앙적 선택이다. 기독교적 ESG 투자는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본이 무엇을 지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책임 있게 묻는 과정이다.

넷째, ESG 통합 전략은 투자 판단에서 윤리적 책임을 주변적 요소가 아니라 핵심 판단 기준으로 포함시킨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투자자는 기업의 재무제표만이 아니라 기업이 창조세계, 노동자, 소비자, 지역사회,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청지기론이 요구하는 책임 있는 분별을 자본시장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2. ESG의 그림자: 신학적 비판이 필요한 지점

그러나 현대 ESG가 가진 그림자 역시 기독교 세계관의 시각에서 명확히 직시해야 한다. 신학적 분별 없이 ESG를 수용하는 것은 ESG를 또 다른 시장 유행이나 평판 관리 수단으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 기독교 청지기론은 ESG의 선한 가능성을 인정하되, 그것이 맘몬의 새로운 언어로 변질될 위험을 경계하도록 요청한다.

1) 그린워싱: 현대판‘속이는 저울’

그린워싱은 기업이 실질적인 환경·사회적 개선 없이 ESG 지표만을 외형적으로 충족시켜 투자자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이는 잠언11장1절의“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선언이 현대 자본시장에서 반복되는 방식이다. ESG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제 사업모델과 운영 방식은 환경과 사회에 해로운 경우, 이는 청지기 보고의 실패일 뿐 아니라 신앙적 언어로는 거짓 증언의 문제이다.

RepRisk의 2024년 보고서는 2024년 전체 그린워싱 사례가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지만, 고위험 그린워싱 사례는30%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14] 이는ESG 규제와 감시가 강화되면서 단순한 ESG 홍보는 줄어들 수 있지만, 여전히 고의적이고 구조적인 그린워싱 위험은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독교적 ESG 투자자는 단순히 ESG 라벨이나 등급을 신뢰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업의 실제 사업 관행, 공급망, 공시 데이터, 제재 이력, 이해관계자 피해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그린워싱의 신학적 문제는 외형적으로는 선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탐욕을 추구한다는 데 있다. 이는 청지기론에서 가장 심각한 위반 유형인“주인의 이름을 빌려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독교적 ESG 분석은 기업이 어떤 ESG 언어를 사용하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창조세계를 보전하고 이웃을 보호하며 투명하게 보고하고 있는가를 검증해야 한다.

2) ESG 평가 불일치: ‘공평한 저울추’의 부재

ESG의 두 번째 그림자는 평가 기관 간 점수 불일치 문제이다. Berg, Kölbel, and Rigobon(2022)은 6개 주요 ESG 평가기관의 동일 기업 ESG 점수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ESG 평가기관 간 불일치가 상당하며, 그 원인을 측정 범위, 측정 방법, 가중치의 차이로 설명하였다.[15] 이는 ESG 점수가 마치 객관적 진리처럼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평가기관별 방법론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 문제는“공평한 저울추”의 부재로 해석할 수 있다. 잠언11장1절은 속이는 저울을 경고하고 공평한 저울추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 그러나 ESG 평가가 서로 다른 척도와 가중치로 운영된다면, 투자자는 동일 기업에 대해 서로 다른 윤리적 판단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기업은 실제 ESG 개선보다 특정 평가기관의 점수 산식에 맞춘 지표 관리에 집중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ESG 평가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최종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적 투자자는 ESG 데이터를 참고하되, 그 이면의 방법론과 한계를 이해해야 한다. 무엇보다 ESG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실제 행위와 그 행위가 창조세계, 이웃, 공동체에 미치는 결과이다.

3) 맘몬 위험: ESG의 수익률 마케팅화

셋째, ESG가 맘몬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일부 자산운용사는 ESG를 진정한 가치 추구가 아닌 펀드 판매와 수익률 제고를 위한 마케팅 도구로 활용한다. ESG 펀드 내에서도 단기적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적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ESG는 창조 보전과 이웃 사랑을 위한 청지기적 실천이 아니라,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한 세련된 금융 포장지가 된다.

디모데전서6장10절의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경고는 ESG라는 옷을 입은 탐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독교적 ESG 투자의 목적은 ESG를 통해 더 높은 수익률을 얻는 데만 있지 않다. 물론 기독교적 청지기는 맡겨진 자원을 무책임하게 낭비해서는 안 되며, 재무적 지속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수익성은 최종 목적이 아니라 선한 관리를 위한 조건이다. ESG가 신앙적 책임의 언어를 잃고 수익률의 언어로만 환원될 때,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맘몬 숭배가 될 수 있다.

4) 개도국과 중소기업의 ESG 소외

넷째, 개도국과 중소기업의 ESG 소외 문제이다. 현행 ESG 평가와 공시 체계는 대기업과 선진국 기업 중심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다. ESG 공시에는 데이터 수집, 외부 검증, 전문 인력, 시스템 구축 비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용은 대기업에게는 감당 가능한 수준일 수 있지만, 중소기업과 개도국 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ESG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구라면, ESG 제도 자체가 새로운 금융 배제와 정보 불평등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ESG 평가와 공시 체계는 취약한 기업과 지역이 점진적으로 ESG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ESG는 선진국 대기업에게 유리한 새로운 진입장벽이 되고, 개도국 기업과 중소기업을 자본시장에서 더 멀리 밀어내는 역설을 초래할 수 있다.

ESG의 가능성	신학적 의미	ESG의 위험	신학적 비판
탄소감축·생물다양성 보전	창조 보전	그린워싱	속이는 저울
공급망 인권 실사	이웃 사랑	평가 불일치	공평한 저울주 부재
ESG 통합 투자	책임 있는 청지기 투자	맘몬화	탐심의 세속화
지역사회·포용금융	희년과 관계 회복	개도국·중소기업 소외	이웃 사랑의 결핍

[표3] ESG의 빛과 그림자에 대한 신학적 분석

VI. 기독교적 ESG 투자 방법론 해석

기독교적 ESG 투자는 추상적 윤리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실제 투자 의사결정에 적용 가능한 방법론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SRI와 ESG 투자 문헌에서 제시되는 주요 방법론을 종합하면, 기독교적 ESG 투자 방법론은 배제 전략, 긍정적 선별, ESG 통합, 주주관여, 임팩트 및 지역사회 개발투자의 다섯 가지 전략으로 구성되고 해석될 수 있다.

1. 배제 전략: 악에 동참하지 않는 투자

첫째, 배제 전략이다. 이는 기독교적 가치와 명백히 충돌하는 산업이나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초기 퀘이커와 감리교의 투자윤리는 노예무역, 전쟁, 술, 도박 등 인간과 공동체를 해치는 산업을 피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오늘날에는 담배, 도박, 무기, 인권침해, 심각한 환경오염, 부패, 착취적 금융상품 등을 배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배제 전략은 단순한 도덕적 결벽주의가 아니다. 이는“내 자본이 무엇을 지지하지 않을 것인가”를 분명히 하는 신앙적 경계 설정이다.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돈이 어떤 산업을 성장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기독교적 투자자는 높은 수익률을 이유로 이웃의 생명과 존엄을 훼손하는 산업에 자본을 공급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2. 긍정적 선별 전략: 선한 청지기 기업 선택

둘째, 긍정적 선별 전략이다. 이는 단순히 나쁜 기업을 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조 보전과 이웃 사랑, 투명한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찾아 투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친환경 전환에 진정성 있게 투자하는 기업, 노동자 안전을 중시하는 기업, 소비자 보호와 금융포용을 강화하는 기업, 투명한 이사회 구조와 회계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 긍정적 선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전략은 웨슬리의“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라”는 원칙과도 연결된다. 기독교적 투자는 경제활동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선한 기업, 책임 있는 기업,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기업이 성장하도록 자본을 공급하는 것은 청지기적 투자행위가 될 수 있다.

3. ESG 통합 전략: 책임 있는 투자 판단의 통합

셋째, ESG 통합 전략이다. 이는 재무분석과 ESG 분석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는 방식이다. ESG는 단순한 윤리적 장식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 가치와 리스크에 영향을 미친다. 탄소위험, 공급망 인권위험, 산업안전, 지배구조 부실, 회계불투명성은 모두 장기적 재무위험으로 전환될 수 있다.

기독교적 ESG 투자는 투자 판단에서 재무 요소와 비재무 요소를 함께 살핀다. 이는 청지기론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청지기는 선한 의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맡겨진 자원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그 자원이 창조세계와 이웃에게 미치는 영향을 책임 있게 검토해야 한다.

4. 주주관여 전략: 기업을 선한 방향으로 이끄는 참여

넷째, 주주관여 전략이다. 투자자는 주식을 보유한 이후에도 책임을 갖는다. PRI는 책임투자자가 적극적 소유자로서 ESG 이슈를 소유권 정책과 실행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한다.[16] 기독교적 관점에서 주주관여는 단순히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압박이 아니라, 기업이 창조 보전, 이웃 사랑, 투명한 거버넌스의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돕는 청지기적 참여이다.

이는 의결권 행사, 주주제안, 경영진과의 대화, ESG 공시 요구, 공급망 인권 개선 요구, 탄소감축 목표 설정 요구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기독교적 투자자는 기업을 단순히 사고파는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다. 기업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이웃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기관이므로, 투자자는 그 기업이 더 책임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참여할 수 있다.

5. 임팩트 및 지역사회개발투자: 이웃 사랑과 금융포용

다섯째, 임팩트 및 지역사회개발투자 전략이다. 지역사회개발투자는 전통적 금융투자로부터 소외된 낙후 지역과 취약계층에 자금을 공급하고 지역경제의 회복을 돕는 투자 방식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는 이웃 사랑과 회년 정신의 실천이다. 단순히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자본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 접근성이 낮은 지역과 계층,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의 주거·교육·일자리·금융접근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자본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투자전략	일반ESG/SRI 의미	기독교적 의미	적용 예시
배제 전략	유해 산업·기업 제외	악에 동참하지 않는 투자	도박, 담배, 무기, 인권침해 기업 배제
긍정적 선별	우수 ESG 기업 투자	선한 청지기 기업 선택	친환경, 노동존중, 투명경영 기업 투자
ESG 통합	재무분석에 ESG 반영	수익성과 책임의 통합	탄소위험, 공급망 위험, 거버넌스 위험 분석
주주관여	의결권·주주제안	기업을 선한 방향으로 이끄는 참여	ESG 공시 요구, 인권정책 개선 요구
임팩트·지역사회 투자	사회문제 해결형 투자	이웃 사랑과 금융포용	지역사회 금융,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지원

[표4] 기독교적ESG 투자 방법론 해석

VII.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네 가지이다.

첫째, 본 연구는 ESG 투자의 역사적·신학적 뿌리를 밝힘으로써 ESG를 단순한 현대 금융기법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과 학문의 융합 주제로 재정립한다. ESG는 흔히 세속적 지속가능경영 담론으로 이해되지만, 그 역사적 배경에는 퀘이커와 감리교를 비롯한 신앙 공동체의 윤리적 투자 전통이 존재한다. 이를 밝히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현대 자본시장 담론과 무관하지 않으며, 오히려 책임투자라는 중요한 흐름의 역사적 토대 중 하나였음을 보여준다.

둘째, 본 연구는 ESG의 E·S·G 요소를 기독교 신학 언어로 재해석하는 분석틀을 제시한다. 환경은 창조 보전, 사회는 이웃 사랑과 회년, 지배구조는 정직한 청지기적 관리로 이해될 수 있다. 이 틀은 ESG를 단순한 평가모형이 아니라 신학적 세계관과 연결된 투자윤리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기독교적 투자윤리를 실천 가능한 투자 방법론으로 확장한다. 기독교적 투자윤리는 단순히 탐욕을 경계하고 선하게 살자는 일반적 권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실제 투자에서 무엇을 배제하고, 무엇을 선별하며, 어떤 기업에 어떻게 관여하고, 어떤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자본을 흘려보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배제 전략, 긍정적 선별, ESG 통합, 주주관여, 임팩트 및 지역사회개발투자를 기독교적 책임투자의 실천 전략으로 제시한다.

VIII.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계획서는 ESG 투자의 신학적 뿌리를 추적하고, 기독교 청지기론을 통해 현대 SRI/ESG를 재해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ESG는 세속 금융이 발명한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퀘이커교도·존 웨슬리·감리교 공동체로 이어지는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수백 년 투자 실천이 세속적 언어로 번역된 결과이다. SRI의 역사적 기원은 곧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역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둘째, 기독교 청지기론은 ESG의 E·S·G 각 축을 창조 보전, 이웃 사랑과 희년, 청지기 보고로 신학화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공한다. 이 매핑은 재무와 신앙의 단순 병렬이 아니라, 신학적 원리가 투자 방법론을 내부로부터 재구성하는 학문 통합의 시도이다.

셋째, ESG는 선한 가능성과 위험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ESG의 환경 지표는 창조 보전의 제도화가 될 수 있고, 사회 지표는 이웃 사랑의 확장이 될 수 있으며, 거버넌스 지표는 청지기 보고의 제도화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ESG는 그린워싱, 평가 불일치, 맘몬적 활용, 개도국과 중소기업 소외라는 그림자를 지닌다. 따라서 기독교적 ESG 투자는 ESG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분별을 통해 그 선한 가능성을 회복하고 왜곡 가능성을 비판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문헌 중심의 개념적·신학적 분석에 집중하였으며, 투자자료를 활용한 직접적인 실증 분석은 수행하지 않는다. 또한 ESG 평가기관 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독교 세계관 기반 독자 ESG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은 향후 연구의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결국 기독교적 ESG 투자는 “착한 기업에 투자하자”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진 자분을 통해 창조세계를 보전하고, 이웃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며, 기업이 더 정직하고 책임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참여하는 신앙적 실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강력한 힘을 가진다. 그 힘이 탐욕과 착취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창조 보전과 이웃 사랑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 기독교적 ESG 투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돈과 자분을 청지기적으로 관리하려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적 시도라 할 수 있다.

1. 각주

- [1] Larry Fink의 2020년 CEO 서한은 기후위험을 투자위험으로 제시하며, 지속가능성 위험이 자본시장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 [2] UN Global Compact의 『Who Cares Wins』, PRI 원칙, GRI Standards, IFRS S1·S2는 ESG가 국제 금융·공시 체계 안에서 제도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 자료이다.
- [3] 『Who Cares Wins』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를 금융시장에 통합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와 더 나은 투자시장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보았다.
- [4] PRI는 책임투자자가 ESG 요소를 투자분석과 소유권 행사에 통합하도록 안내하는 여섯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 [5] IFRS S1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관한 정보를 일반목적 재무보고 이용자에게 유용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6] White(1967)는 서구 기독교의 인간중심적 자연 이해가 생태위기의 사상적 배경 중 하나가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 [7] Berg, Kölbel, and Rigobon(2022)은 6개 주요 ESG 평가기관의 평가 불일치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범위, 측정, 가중치의 차이로 설명하였다.
- [8] RepRisk의 2024년 그린워싱 보고서는 전체 그린워싱 사례가 감소했음에도 고위험 그린워싱 사례는 30%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한다.
- [9] Wesley의 「The Use of Money」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고, 저축하고, 내어주라”는 원칙을 통해 돈의 사용에 관한 기독교 윤리를 제시한다.
- [10] UN Global Compact. (2004). Who Cares Wins: Connec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
- [11] White(1967)의 문제제기는 창세기 1장의 “다스림”을 지배와 착취로 오해할 때 생태윤리가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12] EU CSDDD는 기업이 자신의 활동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대응하도록 요구하는 규제 흐름을 보여준다.
- [13] IFRS Foundation의 IFRS S1·S2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와 기후 관련 공시의 비교가능성과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이다.
- [14] RepRisk. (2024). A turning tide in greenwashing? Exploring the first decline in six years.
- [15] Berg, F., Kölbel, J. F., & Rigobon, R. (2022). “Aggregate Confusion: The Divergence of ESG Ratings.” *Review of Finance*, 26(6), 1315–1344.
- [16] PRI의 원칙은 책임투자자가 적극적 소유자로서 ESG 이슈를 소유권 정책과 실행에 반영할 것을 포함한다.

2. 참고문헌

Bauckham, R. (2010). *Bible and Ecology: Rediscovering the Community of Creation*. Waco, TX: Baylor University Press.

Berg, F., Kölbel, J. F., & Rigobon, R. (2022). Aggregate confusion: The divergence of ESG ratings. *Review of Finance*, 26(6), 1315–1344. <https://doi.org/10.1093/rof/rfac033>

DeWitt, C. B. (1994). *Earth-Wise: A Biblical Response to Environmental Issues*. Grand Rapids, MI: CRC Publications.

European Commission. (2024).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EU) 2024/1760*.

Fink, L. (2020). *A Fundamental Reshaping of Finance: Larry Fink's 2020 Letter to CEOs*. BlackRock.

Global Reporting Initiative. (n.d.). *GRI Standards*.

IFRS Foundation. (2023). *IFRS S1 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

IFRS Foundation. (2023). *IFRS S2 Climate-related Disclosures*.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n.d.). *What are the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RepRisk. (2024). *A turning tide in greenwashing? Exploring the first decline in six years*. RepRisk AG.

Sparkes, R. (2002).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A Global Revolution*. Chichester: John Wiley & Sons.

UN Global Compact. (2004). *Who Cares Wins: Connec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

Wagemans, F. A. J., Koppen, C. S. A., & Mol, A. P. J. (2013). The effectiveness of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A review. *Journal of Integrative Environmental Sciences*, 10(3–4), 235–252. <https://doi.org/10.1080/1943815X.2013.844169>

Wesley, J. (1760). *The Use of Money*. Sermon 50.

White, L., Jr. (1967).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 crisis. *Science*, 155(3767), 1203–1207. <https://doi.org/10.1126/science.155.3767.1203>

Wright, C. J. H. (2006). *The Mission of God: Unlocking the Bible's Grand Narrative*.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